‘5·18 헌혈페스티벌’로 오월정신 잇는다

시장기 전국 중·고교태권도대회서 광주 태권도장 관장 등 200여명 동참

광주시태권도협회는 17일 광주시 서구 염주체육관 광장에서 ‘5·18 민주적 헌혈페스티벌’을 전개하고 있다. 〈광주시태권도 협회제공〉

광주지역 태권도인들이 5·18 42주년을 맞아 뜻깊은 헌혈행사를 열었다.

광주시태권도협회는 17일 광주시 서구 염주체육관 광장에서 ‘5·18 민주적 헌혈페스티벌’을 전개했다. 광주시태권도협회 임직원, 대회 심판진, 광주지역 태권도장 관장, 태권도 지도자 등 200여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제24회 5·18 광주민주화운동기념 광주시장기 전국 남·녀 중·고교 태권도 대회를 계기로 헌혈행사를 열었다.

1980년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에 항거하다 부상당한 시민, 학생들을 위한 자발적인 헌혈행사를 계승하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80년 당시 고립된 광주에서 서로 피를 나누며 생명을 지켜낸 정신을 이어받자는 취지다.

이번 캠페인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됐지만, 헌혈자가 크게 줄어들어 ‘헌혈 절대 부족’이라는 위기상황이 심화됨에 따라 헌혈 참여분위기 확산을 위한 측면도 있다.

이영석 광주시태권도협회 회장은 “8일 동안 열리는 이번 대회는 1980년 5월 민주와 인권, 평화를 위해 군사독재의 총칼에 맨몸으로 맞섰던 민주영령들의 넋을 기리고 그 뜻을 계승하기 위한 뜻 깊은 대회인 만큼 ‘나눔의 봉사정신’인 광주정신이 길이길이 후손에 이어져 모두의 마음속 깊이 각인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5·18 주간에 열리는 5·18 광주민주화운동기념 광주시장기 전국 남·녀 중·고교 태권도대회는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올바른 역사인식과 정보제공을 통해 ‘오월정신’을 제대로 이해하는 계기를 만들어나감은 물론, 광주와 호남에 대한 이미지 개선에도 큰 역할을 해오고 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광주서구노인종합복지관, 어르신 장수사진 촬영

〈광주서구노인종합복지관 제공〉

광주서구노인종합복지관(관장 전명우)은 최근 사단법인 한국청년회의소 서광주청년회의소(김근우 회장)와 연계해 어르신 70여명을 대상으로 ‘만수무강 장수사진’ 촬영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어르신들은 사진촬영에 앞서 시스템웨딩컨설팅, 데일리웨딩컨벤션 등 총 8개 업체의 지원으로 전문 메이크업팀의 도움을 받았다. 또 카네이션 화분, 돋보기 안경 등을 참여한 어르신들에게 선물하는 등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광주서구노인종합복지관 전명우 관장은 “모두가 힘든 시기 어르신들을 위한 온정의 나눔을 실천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사회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전남개발공사, 전남아동복지협회와 협약 체결

〈전남개발공사 제공〉

전남개발공사(사장 김철신)는 최근 전남아동복지협회(협회장 김미자)와 지역아동 독서 활성화를 위해 전자도서관(J-BOOK)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전남아동복지협회 소속 14개 아동시설의 학생들이 시공간의 제약 없이 스마트기기를 통해 전자책을 볼 수 있게 됐다.

전남개발공사에서는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목적으로 지난 2020년부터 전자도서관을 운영에 들어가 신안교육청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23개교 935명의 신안 도서지역 초등학생이 1300여권의 전자책을 대여·활용할 수 있게 했다. 또 공사에서는 전자도서관 회원을 대상으로 2021년 전남개발공사 전자도서관 다독왕대회를 개최, 우수 학생 26명에 대해 시상하기도 했다.

김철신 전남개발공사 사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으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기아 오토랜드 광주파트장협의회 장애인문화협회와 야구 관람

〈기아 오토랜드 광주 제공〉

기아 오토랜드 광주 파트장협의회(회장 정관중)는 최근 (사)광주장애인문화협회 회원 등 광주지역 장애인 300여명을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로 초청해 KIA 타이거즈와 KT위즈의 야구경기 관람을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확산 감소세와 2년 만에 프로야구 관중 전면 입장 허용에 따라 평소 거동이 불편해 문화·여가생활의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장애인들에게 경기 관람을 통한 즐거움을 선물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파트장협의회는 장애인들이 수월하게 경기를 관람할 수 있도록 모든 편의를 제공했다.

정관중 파트장협의회장은 “앞으로도 정기적인 모임을 통한 지속적인 교류로 장애인들의 문화·여가활동 참여를 유도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박기웅 기자 pboxer@kwangju.co.kr

TV프로그램 18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SBS
6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광장	00 생활의 발견 스페셜(재) 10 걸어서 세계속으로(재)	00 MBC 뉴스 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00 해 볼만한 아침 M&W	20 광주 MBC 뉴스 투데이 50 생방송 오늘 아침	20 KBC 모닝와이드 40 모닝와이드 3부
8	25 아침마당		50 비밀의 집(재)	40 맨 인 블랙박스 스페셜 50 좋은아침
9	3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45 KBS 뉴스	00 KBS 아침 뉴스타임 20 으라차차 내 인생(재)	30 930 MBC 뉴스 45 제42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	55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
10	00 제42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 50 5.18 특집 현대사 영상프로젝트 55 한식의 마음 스페셜	00 인간극장 스페셜 40 지구촌 뉴스		
11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10 5.18 특집 다큐 5월 이야기	00 너에게 가는 속도 493km(재)	00 기분 좋은 날	00 애니갤러리 30 라바 아일랜드 45 헬로카봇 12 붐바
12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12		00 12 MBC 뉴스 20 내일(재)	00 SBS 12뉴스 25 민방 네트워크 뉴스 50 네모세모
1	00 시사기획 창(재) 50 KBS 창작동요대회 수상곡	30 트레킹노트 세상을 걷다 스페셜 5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재)	35 출발! 비디오 여행 스페셜 50 2시 뉴스 외전	55 닥터 365
2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10 5.18 기획 열린채널			00 뉴스브리핑
3	10 어린이 동물티비 40 걸어서 세계속으로 초이스	00 KBS 뉴스타임 10 또봇V - 우주수호대(재) 30 TV 유치원	20 뽀뽀뽀 좋아좋아 스페셜 55 기분 좋은 날(재)	
4	00 사사건건	00 국민 영수증(재)	55 5 MBC 뉴스	00 미디어세상 시청자와 통하는 TV(재)
5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오그래피	00 도깨비 언덕에 왜 왔니? 15 뾰족뾰족 포크가족 30 꿀잼 영화가 좋다 50 통합뉴스룸 ET	10 PD수첩(재)	00 SBS 오뉴스 50 휴먼다큐 호남, 호남인(재)
6	00 6시 내고향	30 2TV 생생정보	05 본방을 보자	20 KBC뉴스와이드
7	00 뉴스7 광주전남 40 이리 오너라 조선클럽 시즌2	50 사랑의 꽈배기	05 비밀의 집 40 MBC 뉴스데스크	50 SBS 8 뉴스
8	10 고양이 목에 마이크달GO 30 으라차차 내 인생	30 옥탑방의 문제아들		30 KBC 8 뉴스
9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9	50 너에게 가는 속도 493km	00 심장이 뛴다 38.5	00 골 때리는 그녀들
10	00 5.18 특집 다큐 3공수 42년 만의 증언록 50 더 라이브		20 라디오스타	40 골 때리는 외박
11	3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라인	00 국민 영수증		
12	10 예썰의 전당(재)	00 스튜디오 K 25 스포츠 하이라이트 50 김영철의 동네 한 바퀴(재)	00 지금부터, 쇼타임!(재)	20 5·18 특선다큐 오월의 거짓말

EBS1

05:00 왕초보 영어
05:50 한국기행
06:10 세계테마기행
07:00 두다다쿵
07:15 티시태시
07:30 고고다이노 공룡탐험대
07:45 최고다! 호기심딱지
08:00 딩동댕 유치원
08:20 한글용사 아이야
08:35 하프와 친구들
08:50 방귀대장 뿡뿡이
09:05 빅 블루
09:20 엠버와 함께하는 생활안전 이야기
09:30 EBS 친구들 씽씽
09:40 우리집 유치원
10:10 한국의 둘레길
10:30 한국기행(재)
10:50 최고의 요리비결
11:20 세계테마기행(재)
12:00 EBS 뉴스 12
12:10 극한직업
13:00 당신의 활력충전소
13:50 EBS 다큐프라임
14:45 위대한 수업, 그레이트 마인즈
15:05 클래스 e
15:25 EBS 비즈니스 리뷰
15:50 할 수 있다고 2
16:05 영어 스토리 타임
16:15 페파 피그
16:25 봉구야 말해줘3
16:40 딩동댕 유치원(재)
17:00 EBS 뉴스
17:20 못 말리는 어린 양 숀
17:30 하프와 친구들(재)
17:45 시몽
18:00 생방송 뭐든지 해결단
18:45 타타와 쿠마
19:00 미니특공대 애니멀트론
19:30 한국의 둘레길
19:50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20:40 세계테마기행
21:30 한국기행
21:50 EBS 다큐프라임
22:45 다큐영화 길 위의 인생
23:35 위대한 수업, 그레이트 마인즈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5월 18일(음 4월 18일 辛未)

☎ 010-9790-8237

子 36년생 서로가 미진한 점이 있더라도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라. 48년생 치밀한 계획하에 하나하나 차분하게 조처하는 것이 능률적이다. 60년생 순풍의 해류에 항해하고는 있으나 해저의 암초도 잘 살펴보자. 72년생 장기적인 안목으로 대처한다면 가능성이 높다. 84년생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느니라. 96년생 즉시 보완하라. 행운의 숫자 : 40, 58

丑 37년생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지 않으면 혼란스러워질 것이다. 49년생 내용이 알찬 만큼 포장까지 깔끔하다면 금상첨화이니라. 61년생 목표에 이르기 전에 전혀 다른 방향으로 선회할 수도 있다. 73년생 물고기가 미끼를 물면 낚시에 걸려드느니라. 85년생 후일을 기약하는 편이 낫다. 97년생 위기 관리 능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행운의 숫자 : 23, 68

寅 38년생 즉응하지 않는다면 두고두고 속을 태울 것이다. 50년생 구색을 다 맞추다 보면 대의를 도모하기 힘든 법이다. 62년생 잘 살펴보면 분명히 눈에 띄는 것이 있으리라. 74년생 의외의 장애 요소가 나타날 수도 있느니라. 86년생 제사 덕분에 이밥을 먹는 격이로다. 98년생 판도를 좌우할만한 결정적인 방도가 절실하다. 행운의 숫자 : 67, 61

卯 39년생 타인의 실행 방식을 모방한다는 것은 자기 한계의 징표임을 알게 되리라. 51년생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니 불안감을 떨쳐버려도 된다. 63년생 종기는 곪았을 때 짜야하고 술은 괼 때 걸러야 하느니라. 75년생 괜히 나섰다가는 이상한 입장이 될 수도 있다. 87년생 정성을 다하라. 99년생 가정이 실상이 된다. 행운의 숫자 : 28, 75

辰 40년생 상당한 스트레스가 있거나 불만족스러운 날이 될 수 있다. 52년생 지나친 집착은 대국을 망칠 수도 있음을 명심해야 하느니라. 64년생 정황을 완전히 제어할 수 있어야만 한다. 76년생 제대로 살피지 않는다면 불리해진다. 88년생 지나치다면 부족함만 못하느니라. 00년생 자신감 있게 표출할 필요가 있다. 행운의 숫자 : 41, 76

巳 41년생 현 상태에서 바로 잡지 않는다면 두고두고 후회할 것이다. 53년생 한꺼번에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 될 수 있느니라. 65년생 그 무엇보다도 가장 우선되어야 할 것에 주목하자. 77년생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다. 89년생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겠다. 01년생 안전에 대한 주의가 요청된다. 행운의 숫자 : 02, 56

午 42년생 준비하는 경향과 치밀성에 따라 성취도가 천양지차가 될 가능성이 높다. 54년생 좋은 소식이 있을 것이니 기다려 보자. 66년생 서서히 회복되어 가는 면모를 띠고 있다. 78년생 실제적이지 않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90년생 발전적인 방향이므로 계속 진행해도 된다. 02년생 어떤 입장을 취하든 결과는 같다. 행운의 숫자 : 48, 69

未 43년생 현황을 유지하기 위한 복합적인 대안이 필요하다. 55년생 길조가 비추나 기운이 자주 바뀌는 흐름이로다. 67년생 일시적인 현상에 좌우된다면 소모적일 수밖에 없다. 79년생 체면 차리다가 중요한 것을 실기할 수도 있느니라. 91년생 열린 시각으로 살펴야 제대로 볼 수 있다. 03년생 활동에 제약을 받을 수도 있다. 행운의 숫자 : 32, 65

申 44년생 집중 해야만 효율성이 제고된다는 사실을 감안할 필요가 있도다. 56년생 파급효과까지 감안한 후에 언행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길 것이다. 68년생 소신껏 행한다면 확실히 인정받을 수 있다. 80년생 활용 여부에 따라 향방이 좌우될 것이다. 92년생 소박한 행복을 만끽할 운로이다. 04년생 일단락 지어놓고 보자. 행운의 숫자 : 03, 96

酉 33년생 다 되었다고 여겼을 때가 가장 취약한 법이니 방심은 금물임을 알라. 45년생 뻔히 다 알면서도 위태로운 상황을 일부러 자초할 필요는 없다. 57년생 최선을 다한다면 궁극에 이르러서는 반드시 이루리라. 69년생 억지로 하려고 하지 말고 순리에 따르라. 81년생 귀찮을 것이다. 93년생 이전투구의 양상을 띨 수 있다. 행운의 숫자 : 39, 79

戌 34년생 전후를 살펴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46년생 상대를 존중해 준다면 자연스럽게 무궁한 발전에 이르게 된다. 58년생 포용하고 나아가는 것이 무리가 없으리라. 70년생 고수하지 않으면 혼란에 빠지게 될 것이다. 82년생 높이면 낮아지고 낮추면 높아지는 법이다. 94년생 이상한 기류가 감지되겠다. 행운의 숫자 : 43, 66

亥 35년생 오랫동안 갈구하여 왔던 힘의 기반이 생길 것이다. 47년생 마음에 동하지 않으면 응하지 않아도 된다. 59년생 협조자를 자칭하는 이가 나타나는 판국이다. 71년생 걷기도 전에 뛰려고 하는 격이다. 83년생 제반 사정을 차치하고 일에 몰두하는 것이 옳다. 95년생 일관된 소신을 바탕으로 하는 언행이 바람직하다. 행운의 숫자 : 37, 81